

순천만국가정원 옆 공공자원화 부지에 리조트 건립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건립 시민복지·에너지 거점 역할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옆 연향들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공공자원화시설 연계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해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연향들 내에 담아낼 전망이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45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곳에는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민편의상가가 들어설 계획이며, 다양한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합용지도 마련된다.

연향들 일원은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공간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인접해 있어 최고의 정주·업무 환경을 갖췄다.

시는 현재 전남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

인 이후에는 조속한 보상과 분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순천은 박람회로 유입된 외부 소비군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 부족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또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던 15번의 순천상생토크에서는 수영장, 공연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 조성에 나선다.

국제규격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 시설을 추진해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 가능한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함께 추진한다.

또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해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스포츠 재활센터, 최첨단 복지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인근에는 예술의전당과 재활과 레저를 겸한 공공 실내수마장을 조성해 시민의 풍부한 여가생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운수, 냉·난방 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 제공

로, 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소각열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에너지 자립형 거점 공간 창조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순향중인 연향들 일원 개발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연향들 일원을 시

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관규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연향들 일원은 앞으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공간이다"며 "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GO 흥이 나는 별빛여행' 출시 고흥군, 우주항공 테마 천체관측

고흥군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테마 천체관측 여행상품 'GO 흥이 나는 별빛여행'을 출시했다.

빛 공해지수가 낮아 별 관측에 유리한 고흥의 특징과 '우주항공 중심도시'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천체관측 및 우주항공 테마를 결합한 이번 상품은 오는 28일~29일, 10월12일~13일, 11월9일~10일까지 총 3회 운영된다.

이번 여행상품은 회당 4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등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시설에 직접 들어가 누리호 발사 현장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다양한 우주 관련 체험시설과 이색 프로그램, 고흥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 프로그램, 분청사기와 고흥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전국 최대규모의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인 대원여행사 누리집(<https://www.daewo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062-526-7000)로 연락하면 된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다양한 특별여행상품을 기획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20일 실내체육관 일원서 개막

구례군이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준비로 분주하다.

전국 최초로 열리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로 풍성하게 채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구례군 친환경 농가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흙 벽' 포토존이 눈에 띈다. '흙의 얼굴', '흙의 시간,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군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행사장 주무대 옆에 조성된 탄소제로(ZERO) 흙 놀이터는 오직 자연 속 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구례실내체육관 인근에는 다양한 분재 전시와 함께 DIY 소품 만들기, 목재 문화 체험 등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주무대에서는 지리산 식물 세밀화, 흙 살리기 포스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또한 남도 전통 음식 명인명장 정금례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와 구례 특산물을 활용한 브런치 요리 특강도 진행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송민섭 기자

보성군, 전통시장 장보기

보성군은 12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전통시장의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보성군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와 공직자 200여 명이 함께 각자 필요한 제수용품과 각종 특산물을 구매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최근 대규모 점포 이용과 인터넷 발달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기여는 물론 상인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 상인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사랑봉사단, 보성군새마을회, 군민문화운동 주관으로 준비한 생수, 녹차 등 1000여 개를 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과 시장 방문객들에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송민섭 기자

농어촌 정비법 개정 빈집 정비 장흥군, 최대 300만원 지원

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장흥군은 빈집 정비를 위해 1년 이상 사용 안된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견베움·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시 옥곡면은 지난 11일 옥곡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명절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 옥곡면,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

광양시 옥곡면은 지난 11일 옥곡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명절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11개 사회단체 90여 명과 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신금공단 내 공한지 및 주

요 대로변 일대, 옥곡시장 삼거리, 마을 진입로 등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소를 진행했으며 도로변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마을 곳곳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 하천 부유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불법 현수막과 부착물 등을 제거해 약 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 사회단체 회원은 "우리의 노력이 옥곡면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옥곡면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치근 옥곡면장은 "더운 날씨에도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회단체 회원분들 덕분에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 있는 옥곡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홍양농협-제주시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고흥군은 12일 고흥군과 홍양농협(조합장 조성문)이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과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각 도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흥군 직원과 홍양농협, 제주시농협 임직원들이 각 900만원을 상호 지역에 교차 기부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6월 제주시 농협 쌀 판촉 행사에 이어 상호 교차 기부를 통해 제주시의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흥군과 제주시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 금액은

개인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고흥군은 답례품으로 고흥 한우, 쌀, 유자, 제철 수산물 등 400여 종의 농수축산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고흥몰 이용권과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분청사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